

재생에너지 생태계 메카 전남, 차세대 전력망 빛본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전남에 구축

ESS 대규모 확충·AI 기술 접목
산학 연계 독립 전력망 구축 가능
광주 RE100 산단 조성에도 탄력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의 핵심지로 전남을 선택한 건 지산지소(地産地消·전기가 만들어진 곳에서 전기 소비)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생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을 소비하는 배전망 단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하는데, 발전된 재생에너지를 가까운 수요처를 보내고 남은 전기는 다시 전송되는 양방향 계통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많은 지역의 소규모 전력망에 ESS를 대규모로 추가하고, AI 관리 기술까지 더해 특정 지역 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그 곳에서 쓰이게 해야 하는데 전남이 이 같은 사업 실험 장소로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력이 남을 경우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전남은 전력 자급률 200%,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5.19GW)과 잠재량(444.2GW)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해남 산이면 일일에는 2090만㎡ 부지에 AI 데이터 센터와 ESS 등을 유치하려는 기업도시 ‘솔라시도’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올해 4월 3.2GW(7기가와트)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전남은 지난달 초 정부가 ‘RE100’ 산단 조성을 구체화하면서 전남을 유력한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언급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전남 동부권에 건취 기반사업이 비교적 적은 서부권에 RE100 그린산단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당시 RE100 산단 유치로 오는 2030년까지 23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이를 통해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와 1조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RE100 산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남도 입장에서 이 날 대통령실 발표로 재생에너지 중점도시로의 도약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 차세대 전력망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남 지역을 광역 단위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전력시장과 관련한 규제 특례를 과감하게 적용하고, 대규모로 ESS 설비를 구축해 전력망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남 도내 산업단지와 대학 등과도 마이크로 그리드(소규모 독립 전력망)를 구축이 가능할 수 있게돼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민국 AI실리콘밸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광주시는 AI산업단지와 미래차 산업 단지에 RE100 을 결합하고 있다.

미래차 RE100 스마트 산단의 경우 에너지자립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미래차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광주시도시공사도 첨단 3지구에 에너지 자립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6개 기업과 지난달 협약을 체결하고 산단내 18.48MW급 연료 에너지 발전소(수소발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여환구 통상교섭본부장. <기획재정부 제공>

지역경제 불확실성 해소 환영...농축산물 추가개방 압력 우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광주·전남 반응

식량 안보·주권 지켜낸 값진 성과
자동차·가전 등 수출산업 피해 완화
추가협상 압박 선제적 대책마련을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기로 하면서 광주·전남 농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가 개방 압력에 대해 우려했다. 광주 경제계는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 수출산업의 피해를 일정 부분 완화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광주·전남 농민 ‘환영’=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31일 성명서를 내고 “미국 측은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고 발표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쌀·소고기 시장은 의제조차 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쌀과 소고기 이외의 품목, 즉 사과 배의 검역절차 완화, 미국산 GMO 농산물 신속통관 등을 합의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미 FTA 상 아직 관세가 남아있는 농산물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수입쌀 이면합의를 통해 국내시장을 더 개방했을 수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폐해하기 위해 소고기 검역 절차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산 소고기 국내 소비량 확대를 꾀했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발표가 국내 여론을 의식한 허위 발표였다면 이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서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앞으로 비관세 장벽 축소, 시장개방 확대 요구, 과제류에 대한 한국 검역 절차 등 미국의 끊임없는 협의 요구에 대해 협의 대상도, 타협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추가 협상 압박이 있더라도 농민, 그리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 마련을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장, 전남지사 ‘불확실성 해소’=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자동차의 경우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돼 광주 완성차 공장 차량 생산 및 수출 정상화, 협력 부품업체의 경쟁력 회복,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당초 예고된 25%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세가 타결된 것은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 수출산업의 피해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자국 중심 외교정책을 고수해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낸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컸던 쌀 추가 개방과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내 이웃 나라보다 협상을 매우 잘했다”며 “폭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농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전용 펀드는 전남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의 새로운 기회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도는 이번 협상 내용과 추후 진행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철강 등 지역 산업 피해 최소화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계 ‘의미있는 성과’=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입장문을 통해 “지역 기업과 경제계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상의는 “당초 25% 수준이던 상호관세율과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로 낮춘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또한 지역 경제의 안정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광주경제자총협회(광주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타결로 지역 기업이 최악의 위기 상황을 피하고 안정적인 기반에서 경영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최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특히 광주지역 경제의 심장인 자동차·가전 산업에 25%의 관세가 부과됐다면 지역의 완제품 생산 공장과 수많은 부품 협력 업체의 연쇄 타격·고용 불안이 불 보듯 뻔했다”며 “미국의 거센 개방 요구 속에서도 쌀과 소고기 등 우리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가치를 지켜낸 외교적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환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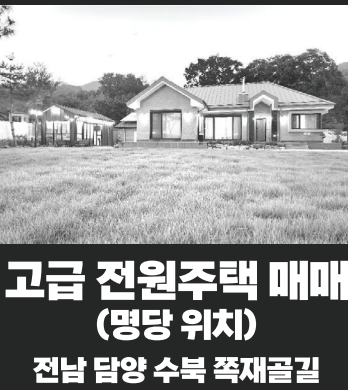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07월 29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며, 청산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본 회사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 익일(7월 29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채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약 위 기간내 이의나 채권신고가 없을 경우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신일가스텍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화취동 011-11-0004 (11-4)
대표이사/사내이사 유성민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백대운(400930-1XXXXXX)
• 최후주조: 광양시 행정1길 9, 503동 308호 (중동, 동광아파트)
피상속인 망 백대운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5노단297호로 신청하여 2025년 7월 1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8월 1일
• 상속인: 1. 조수민(640821-2XXXXXX) 내주시 송월18길 10, 105동 701호 (송월동, 양오마을에 한빛아파트)
2. 조수진(661205-2XXXXXX)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25, 2005호 (도내동, 고양학림중시내)
3. 조연호(700721-1XXXXXX) 광주광역시 금호로 18, 201동 201호 (소촌동, 소촌2차아파트)
4. 조수경(703115-2XXXXXX) 광주광역시 여동로653길 89, 301동 1006호 (소촌동, 소촌3차아파트)
5. 조연숙(760927-1XXXXXX) 대구 달서구 대서동 제천로 160, 101동 1402호 (북구재림포로마을아파트)
• 신고기간: 2025. 8. 1. ~ 2025. 10. 11.
• 채권신고처: 상속인 백정호의 주소



고급 전원주택 매매 (명당 위치)
전남 담양 수북 죽재골길

대지 704py, 주택 60p
카페부속건물 20p, 태양 6길로
최고급 독립 건축재료, 경치 최고.

금 매
매 16억 9천, 은행 11억.
인수가 5억 9천
010-3646-8700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전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탁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탁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